자기가 자기를 의심치 말고 물러서지 마세요!

☞19면에서 계속

치게 되면 혼란이 오거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령들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소소한 우리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가 하면, 정말 이 별성에서 싸움박질들이 난다면 이거는 무슨 조그마한 하나만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피해가 있단 말이야. 마음세계에서 싸움이 나면 어떤 때는 파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라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화산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물로 인해서 죽기도 하는 변화가 생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란을 정돈하고 잘 이끌어 나가려면 우리 한국에서도 대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경제난을 비롯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 혹성 하나에 소관된 문제입니다. 세계를 세계라고 하지만 구정토에서 요거 하나 소속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정토에 소속돼 있는 거와 똑같고 구정토는 또 은하계에 소속돼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마음은 직접 통합니다, 이 불성 자체가.

옛날 얘기 한마디 하죠. 옛날뿐만 아니라 옛날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잘 파악해서 들으세요. 한 사람이 훈련대장으로서 권위가 당당하고 무관으로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어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권력은 있으나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 경솔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부모에게도 효도가 없어, 또 형제에게도 아름다운 마음이 없고 지혜롭게 이끌어나가지를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

어느 날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스님 한 분이 절 지을 돈, 시주돈을 짊어지고는 끙끙하고 올라가는데 도둑들이 들이덤벼서는 스님을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걸 물리치고 스님도 살리고 돈도 빼앗아서 그 스님에게 다시 주었단 말이야. 그러고는 후미진 데 혼자 다니시지 말라며 잘 보좌해서 올려보내곤 말을 타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 그 스님은 무사히 절에 도착해서는 시주돈으로 절을 잘 지었지. 자기 생전에는 그거 한 가지밖엔 잘한 게 없어, 자기가 나중에 늙어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모든 게 자기한테 조건이 불리해. 그런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이 어른이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도 그냥이나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돼지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 이 소릴 잘 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원망을 안 했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 그렇고, 자기가 지은 인연이라 그렇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렸으면 산돼지로도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앙심을 먹곤 잔뜩 이를 가니까 산돼지밖에 될 수가 없거든.

한쪽은 산돼지가 됐고 한쪽은 독사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아,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오백년을 지내도 독사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 그냥 그 소굴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 다 업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촉각이나 시각으로나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심안의 눈이 있어야 보지. 그러니 이게 독사뱀이 뭘이 사랑을 하는지 사람이 사랑을 하는지 몰라. 자기 모습이 흉악한지 자기한테 독이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고선 그 속에서 또 낳게 되고, 죽으면 또 뱀이 되고, 잡혀먹히고, 또 쫓기고 밟혀 죽고 찢겨 죽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식이 찢겨 죽게 되면 또 어미나 아비가 그냥 독을 품고선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자식은 죽고 이렇게 애를 말리면서 살기를 오백년을 살았다 이거야.

오백년을 살다보니까 하루는 어느 결에 새끼들을 오물조물 낳아놓고는 다복하게 음식을 먹는데 웬걸, 산돼지들이 약초 뿌리를 패먹느라고 그 땅을 막 파헤치는 동안에 뱀 소굴이 모두 벌겨졌단 말이야. 그게 원수로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를 갈면서 너 잘 만났다 이럭하고선 전부 죽였단 말이야. 전부 죽고 나서 독사 즉, 남편이 말이야, 자식 부인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서 애처롭게 떠억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기가 막혀! 영이 돼서 보니까 말야.

살 길이 없나 하고 휘적휘적 보다가 이제는 살모사 굴로 들어갔다고. 그게 또 우연히가 아니야. 자기가 한 것대로 길을 받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안에서 다 업식으로 만나서 업보로 인과로 됐으니까 자기를 끌고간다는 게 나쁜 데로만 끌고 가는 거지. 그래 거기에서 살모사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장가를 들었단 말이야. 장가를 들었는데, 살모사는 새끼를 낳으면 아비는 능구렁이가 되고, 살모사 새끼들은 어미를 잡아먹어야 구렁이로서의 모습을 바꾼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고것만 잘 들어요, 인과에 대해서.

그래서 살모사 속에 들어가서는 떠억 장가를 들어서 자식들을 낳아놓고 보니 아주 재롱도 잘 부리고 귀엽고 좋거든. 그런데 어느 날 오물쪼물한 자기 새끼들이 제 어미를 잡아먹는단 말야. 먹고 자라.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자기는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 그 어미가 이 목줄기의 독을 팍 없애면서, 요즘으로 치면 그게 마취나 한가지지. 그 독을 딱 빼버리고 쫙 드러누워 있으니까 아 그냥 새끼들이 그저 너도나도 뜯어먹고는 또 자라요. 그렇게 뜯어먹는 그 광경이라니! 뼈다귀만 남겨놓고 다 뜯어먹고는 뼈다귀는 뼈다귀대로 개미떼들이 또 와서 뜯어먹고 가져가는 그 광경! 그거를 다 보고 난 뒤에야 이제 그게 능구렁이가 된대요.

그걸 다 보고 난 남편은 너무 허무해.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슬슬 나왔어요. 나와서 어느 풀섶에 처억 기대서 강을 내려다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소리를 그 스님이 들었어요. 오백년이 지나고 벌써 십만년이 지났다는 얘기야. 십만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뱀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깐 그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이거 거짓말로 알아들어서는 안 돼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뱀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쥐새끼로 들어갔다면 쥐새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은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쥐새끼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도솔천(兜率天)에서 열반을 하시고 도를 통하시고서 저 도솔천의 연화장불(蓮華藏佛)이 돼 가지곤 터억 보니까 아, 그 뱀에 연관이 돼 있거든.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때 살려준 그 고마움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 보니깐 아하! 이거 그때의 인연이 이제서야 참회를 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니 참….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들린 거지.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얼른 들렀을 텐데 그전엔 아주 좋기만 하고 그게 사는 걸로만 알았으니까 뉘우치지 않는데 스님한테 들릴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 소릴 듣고 옥황상제한테 한 찰나에 연락을 해서 참, 그 인연을 제도하러 내려갔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이 구렁이가 앉아서 울고 있는데 말이야, 훈련대장으로 있을 때에 그 밑에서 사람을 끌어오고 죽이고 재산 뺏고 그러던 그것이 두꺼비가 돼가지고선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 뱀 앞에 와서 약을 올리는 거야. 그런데 이 뱀은 그 사연을 몰라. 두꺼비가 계속 뱀을 놀리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터덜터덜 오시거든. 오시니까 거기서 터억 소리가 나는 거라. 이 뱀이 그 소리를 들어, 인제. 두꺼비도 듣고 뱀도 들어.

"너희 둘 잘 만났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만난 것도 과거로부터의 인연이니라. 너희들은 악행을 너무 저질러서 만남도 이러한 것이니라. 저 두꺼비도 본심은 착한데 너의 말을 듣고 일을 저질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네놈이 더 잘못했어. 너는 나를 한 번 살려준 것밖에는 선행한 게 없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 두꺼비…." 그래 그런 설법을 쭈욱 했어. 그러니까 그만 뱀이 우는 거라. 울면서 두꺼비한테 하는 소리야. "만약에 내가 너를 잡아먹으면 내 몸은 그냥 버리고 나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너는 내 몸에 의해서 몸이 두꺼비로 다 화(化)하게 되니 너는 두꺼비를 또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지 말라."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했지, 뱀더러.

"네가 저지른 거니까 빨리 두꺼비를 삼켜라. 그러면 내가 인도를 할 테니 요 들판만 내려가면 암자가 있는데 거기 큰 솥 걸어놓은 데 그 아궁이에 오늘 밤에 들어가 있으면 내일 아침에는 거기다가 불을 지필 테니 절대로 뜨겁단 말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몽땅 태워 없애라. 던져라. 네 몸뚱이를 하나 던지면 두꺼비도 살고 너도 사느니라. 그래서 인도환생을 하되 그때는 인간으로 태어나 나쁘게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라. 십만년 만에 인간으로 도로 갖다놨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하기 달렸다. 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절을 짓고 내 목숨이 살고, 내 목숨이 살았기에 도를 이루었고, 도를 이루었기에 네 울음 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니 그렇게 알고 몸을 던지는 것이 네가 빠져나갈 길이니라." 그러거든.

그래서 뱀은 두꺼비를 냉큼 집어 삼키고서는 스님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서는 다른 사람 몰래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꿈벅꿈벅하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단 말이야. 두꺼비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그냥 죽어서 그게 뼈 마디마디마다, 즉 말하자면 썩는 대로 두꺼비가 돼요. 그 독이 퍼지니깐 얼마나 아픈지 비꼬곤 그냥 있어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어떤 스님이 와서 불을 지피거든. 불을 지피니 얼마나 죽겠느냔 말이야.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인도환생을 못한다는 말에 그냥 꾹 참고 그 고비를 넘겨서 인도환생을 했대요. 응? 그 뒤는 뭐 또 자기 할 탓이지만 말이야, 도로 갖다 놨으니.

그래서 우리의 이 몸속이라는 자체가, '천상 인간도 벗어나야 된다.' 하는 소리는 뭐냐 하면 사왕천(四王天)의 천상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해서 선은 짓되 악은 놔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서 선을 짓게 되면 선으로 가다가 악을 또 지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迷)해질 수가 있고 길지가 못해. 또 한 점은 선과 악은 다를 수가 없어. 또 한 점은 영령들과 인간 산 사람들과는 또 다를 수가 없어.

그러니 모두 놔라 이거예요. 모두 모두 맡겨놔라 이거야. 놓으라니까 무슨 놓을 게 있어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거기에서밖에는 해결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감사함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모두 품안으로 안을 수도 없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 없다, 거기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하고 믿고 나가라 이거지, 그것이 놓는 거라고.

그것이 놓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자꾸자꾸 놓아 들어가면 업보로 뭉쳐진 이 중생들이 다 그냥 보살로 화해 버려.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니 좋습니까. 거기에서 호법신(護法神)도 생기고, 수호신(守護神)도 생기고, 화신(化身)도 생기고, 법신(法身)도 생기고 모두가 수효가 없이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냐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귀인이 생기고 발이 넓어지고 속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떳떳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죠.

(다음 호에 이어서)

>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 거기에다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되는 거죠.
>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참 행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행선(行禪)입니다.

※위 법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선밀종 임원 · 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양종 이거나 밀종으로 이루어진 현실에 해동초조인 원효선사를 종조로 밀로 점수하여 선으로 돈수하는 선밀종을 창종 하고저 발원 하오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의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선지식, 대덕스님과 인연 닫기를 기원합니다.

-입 종 안 내-

◆종 단 명 : 대한불교선밀종
◆종교단체등록(37451-00292)
◆비영리법인고유번호(513-82-65714)
◆총 본 산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 1동188 -7번지 관정사
◆연 락 처 : ☎ 054)976-0405 / FAX 054)976-4405
◆입종상담 : 010-3134-8484(원묵)

大韓佛教 禪密宗
TEL 054)976-0405 / FAX 054)976-4405
www.sunmiljong.or.kr

석불,목불,동불,소불, 전문 제작 신라불교 공예사

천수천왕목불상

신라 불교 석물의 대표작 다보탑

금강역사석조물

시공장소: 대구 동구 도동 제현사

신라인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11-811-7771 · 016-9211-3330 / 팩스 : 053)981-5558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8 번지